

#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로\*

박 찬 옥  
(서울여자대학교)

## I. 서론

근래 들어 중어학계에 “응용”이라는 말이 중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언어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놓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언어분석의 결과를 우리 일상의 일부와 그리고 기존의 여타 학문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산언어학, 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대외한어교학 등이 그 예로서 기존의 중국어 연구결과를 여타 분야의 연구결과와 결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논문검색은 차치하고 중국이나 한국의 서가들만 둘러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어학계의 이러한 현상은 영어학계와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각 분야마다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응용”에서도 특히, 대외한어교학 분야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면에 기인한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어 능통자에 대한 사회적

---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으며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구가 곧 교실에서의 “실천”이며 그 실천은 다시 곧 “이론”의 바탕이라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중국어 교육자들은 중국어를 잘 하면 된다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중국어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정론적 입장에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대외한어교학의 부흥을 불러온 것이다.

본고는 “중국어 어떻게 하면 잘 하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고민의 주요대상으로는 교수자, 학습자, 교재가 있겠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도 교재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언어 학습은 언어수행의 기능에 따라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나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외국어 수준을 가늠하는데 있어 그 척도로 말하기 능력을 꼽는다. 기타 언어수행에 비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수행자의 현장 대응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언어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말하기 능력은 언어수행에 있어 초급에서 고급단계까지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기능으로 꼽힌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시중에 나온 중국어 말하기교재이다. 말하기교재는 중국인들의 말하기 관습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발화행위—반응행위)를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상황과 상용어휘, 대화의 양을 단계별로 재조직, 배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재 편찬 시 중시해야 할 점은, 내용상 중국인들의 일상대화가 가능한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어찌다 간혹 쓰이는 표현보다는 상대방의 선행발화에 따라 의례 반응하는 발화를 기반으로 해야 학습자들이 좀 더 빨리 원어민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교재의 대화 속에 드러난 “발화행위”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즉 원어민과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며 좀 더 나은 능력의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는 특히 교재 내 발화행위에서의 칭찬화행(compliment)과 그 반응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대화는 단순한 단어의 배열 또는 문장의 배열이 아

니다. 그것은 해당 민족의 사회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謝謝(고맙습니다)”라는 감사행위는 “不客气(별말씀을요)”라는 반응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만약 선행 발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무례한 사람으로 오인되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예로 미루어, 학습자들이 아무리 많은 단어와 문장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언어수행능력을 배양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재 분석에 있어 화행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중 칭찬은, 특히, 각 문화별로 상당히 상이한 반응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같은 문화 내에서도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마주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기대한다. 서양 문화권에서 칭찬을 듣게 되면 “thank you(감사합니다)”라고 “수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등의 “거절”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서양권의 반응대로 반응했을 경우 분명 무례한 사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예로 미루어 중국인의 “칭찬—반응”에 대한 관습적 구조 분석은 이에 대한 습득이 요구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상황에 따른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 교재의 편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칭찬—반응”의 행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속체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속체란 “발화에 수반되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박용예 2005:326)”으로서 인접쌍(adjacency pairs)과 선호구조(preference)가 그 예에 속한다. 이 중에서 본고는 인접쌍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재분석을 할 것인데, 인접쌍이란 상이한 화자에 의해 제공되는 발화가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인접하여 구성된 대화쌍을 뜻한다. 이 개념은 원래 대화분석에서의 개념으로서 대화라는 사회행위가 어떻게 시작하고 끝을 맺는지에 대한 Sacks & Schegloff(1973)의 분석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는데, “인사”에 대한 “인사”, “감사”나 “요구”, “칭찬” 등에 대한 “수용”이나 “거절” 반응이 서로 다른 화자에 의해 인접하여 제공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대화분석은 본고와 방법론적인 면에서 한 가지 큰 차이를 보인다. 바로 언어자료에 대한 차이이다. 대화분석은 본래 자연담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만 본고의 분석대상은 다듬어진 대화문장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큰 차이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대화분석의 분석틀을 차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어교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원어민과의 상호의사소통에 둔다면 그 안의 대화구조 역시도 중국원어민의 사회행위—대화—를 원형으로, 그들의 행위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편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칭찬이란 “상대방에 대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말하는 호의적인 판단이나 의견으로서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취향이나 흥미에서의 공통성을 표현하여 대화참여자 상호간에 유대감을 창조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Manes & Wolfson 1981[이원표 2001:328 재인용]) 이에 칭찬의 주제는 크게 주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외모나 물건, 또는 능력이나 성취 등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은 크게 “동의”와 “비동의”로 양분된다. 하지만 어느 때 “동의”표현을 해야 하고 또 어느 때 “비동의”표현을 써야 하는지는 각 민족의 문화나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어 일찍부터 영어권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인의 “칭찬—반응”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9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되었으며(Chen 1993; Ye 1995; Chen 2003; Wang & Tsai 2003), 특히 국내의 중국어 교재 대화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제 2절에서는 언어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 3절에서는 자료에서 보이는 현상을 기술한다. 기술의 중점은 교재 내에 출현하는 “칭찬”과 그 “반응”이지만 기존 연구(Wang & Tsai 2003)와의 비교를 위해 “칭찬”의 주제를 “외모, 소유”와 “능력, 성취”별로 나누고 “반응”도 “수용”, “거절”, “무응답”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또 “칭찬”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접쌍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제 4절에서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제 5절에서는 결론으로서 내용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교재편찬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한다.

## II. 언어자료

본고의 분석대상은 중국어 교재 내에 출현하는 “칭찬—반응”구조이다. 이

에 언어자료는 시중에 출판된 중국어 말하기교재에서 취하였다. 그 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Easy 中國語(易捷漢語~實用會話) 1[劉彤, 邵力敏 편저; 주양곤, 고단단 번역 2004 China Press]
2. Easy 中國語(易捷漢語~實用會話) 2[劉彤, 邵力敏 편저; 주양곤, 고단단 번역 2004 China Press]
3. Easy 中國語(易捷漢語~實用會話) 3[劉彤, 邵力敏 편저; 주양곤, 고단단 번역 2004 China Press]
4. 중국어路(上)[趙金銘, 蘇英霞, 胡孝斌 지; 김현철 편역감수 2007 다락원]
5. 중국어路(下)[趙金銘, 蘇英霞, 胡孝斌 지; 김현철 편역감수 2007 다락원]
6. 新步步高 중국어(중급)[叢琳, 盧嵐嵐 편저 2007 시사중국어사]
7. 알짜배기 중국어 구어표현 500(漢語口語習慣用語教程)[沈建華 著; 왕혜경 편저, 시사중국어사 2006]
8.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漢語口語速成, 北京語言大學出版社)[馬箭飛, 李小榮 2007(제2판) 다락원]
9. 中級漢語口語(下冊)[劉德聯, 劉曉雨 編著 2000 北京大學出版社]
10. 高級漢語口語(上冊)[劉元滿, 任雪梅, 金舒年 編著 2004 北京大學出版社]

교재를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랐다. 우선 저자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 원어민이어야 한다. 이는 한국인 저자보다는 원어민 저자에 의한 교재가 “칭찬—반응”구조의 원형 고찰이라는 본고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둘째 초급, 중급, 고급 모두 취한다. 이는 초·중·고급의 단계 설정은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원어민에게 있어서는 그 단계별 분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你好(안녕하세요)”란 인사말은 초급단계 학습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표현이지만 실제 원어민에게 있어서는 ‘초급단계’의 표현이 아닌 대인관계의 시작을 위해 평생 사용해야 하는 인사말이다. 각 교재별 “칭찬—반응”구조의 출현회수는 아래와 같다.

1. Easy 中國語 1:	0회
2. Easy 中國語 2:	0회
3. Easy 中國語 3:	0회
4. 중국어路(上):	3회
5. 중국어路(下):	8회
6. 新步步高 중국어(중급):	4회
7. 알짜배기 중국어 구어표현 500:	12회
8.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	10회
9. 中級漢語口語(下冊):	11회
10. 高級漢語口語(上冊):	29회
<hr/>	
총계:	77회

가장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칭찬—반응”구조는 선행발화에서 표현되는 “칭찬”에 대해 후행발화가 “반응”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路(상) 22:49]<sup>1)</sup>

- 司 机: 你學了多長時間漢語了? (중국어를 얼마나 배우셨죠?)  
 英 愛: 半年多了。 (반여 년이요.)  
 → 司 机: 說得真棒! (정말 잘 하시네요.)  
 → 英 愛: 哪兒啊, 還差得遠呢。 (필요, 아직 멀었는걸요.)

그러나 교재에서는 “칭찬”만 있고 “반응”이 없는 무응답의 구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路(상) 22:49]는 출처를 의미한다. ‘路’는 ‘중국어路’라는 교재명의 약칭이며 ‘22’는 ‘제 22과’를, ‘49’는 ‘49페이지’를 가리킨다. 이하 교재명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E’: Easy 中國語, ‘路’: 중국어路, ‘新’: 新步步高중국어, ‘알’: 알짜배기 중국어 구어표현 500, ‘신’: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 ‘中’: 中級漢語口語(下冊), ‘高’: 高級漢語口語(上冊)

(2) [路(상) 22:50]

...

→小 胡: 沒想到你還會書法。真讓人佩服。

(서예도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한 걸.)

→(小 劉: ? )2)

(?)

小劉的同屋: 小劉不但會書法, 還會畫畫兒呢。

(서예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릴 줄 아는 걸.)

...

예(2)는 “칭찬”에 대한 “반응”이 부재한 경우에 속한다.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어민의 사회행위에서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칭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칭찬—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칭찬—반응”의 일부이지만 올바른 인접쌍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 3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III. 현상

본고에서는 본래 중국어 교재 내의 대화를 크게 “성별”, “주제”, “반응”, “지위”, “인접쌍 구성유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중 “성별”은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고 삽화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대화녹음 내용을 직접 들어 보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논외로 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주제”, “반응”, “지위”, “인접쌍 구성유무”와 관련한 현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주제”에 따른 “칭찬—반응”

“주제”는 주로 Wang & Tsai(2003)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주제”는 칭찬

2) 예문에서 출현하는 물음표“?”는 “선행발화에 대응하는 반응발화의 부재”를 표시한다.

의 내용으로서 인접쌍의 첫 번째 화자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는가 하는 것인데,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교재의 저자는 첫 번째 화자가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도록 설정했는가”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가장 자주 언급되는 “외모”, “소유”, “능력”, “성취”를 꼽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시 칭찬을 받는 대상의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으로 간략화하여, 물질적인 면인 “외모”와 “소유”를 하나의 범위로 놓고 “능력”과 “성취”를 또 하나의 범위로 놓았다. 그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모”와 “소유”의 예이다.

(3) [路(상) 7:78]

- 小 劉: 奶奶, 您今年多大年紀了?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奶 奶: 八十二了。 (여든 둘이란다.)  
 → 小 劉: 您身體真好。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 奶 奶: 還行。 (뭐 그렇지 뭐.)

(4) [路(하) 31:157]

- 小 戴: 這花瓶真好看。在哪儿買的? 我也想買一個。  
 (이 화병 정말 예쁘네. 어디에서 샀어? 나도 하나 사고싶은데.)  
 → 朋 友: 你要是喜歡就送你吧。(그 그렇게 좋아하면 그냥 줄게.)  
 小 戴: 這多不好啊。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朋 友: 這有什麼? 拿去吧我還有一個呢。  
 (그까지 걸 뭐? 가져가. 난 또 있어.)

다음으로 “능력”과 “성취”의 예이다.

(5) [新 3:44]

- 朴英美: 李先生, 您有時間嗎? (이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李昌鎬: 有, 有什麼事嗎? (예, 무슨 일이세요?)  
 → 朴英美: 我聽說您的漢語水平很高, 想問問您關於學習漢語的情況。(이 선생님 중국어 수준이 높다고 들었는데 중국어 공부와 관련해 좀 여쭙어 보려고요.)



→李昌鎬: 您過獎了。不過我倒是學過差不多一年的漢語，對漢語有一些了解。(과찬이십니다. 뭐 한 1년 정도 배워서 조금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6) [高 14:157]

.....

郝 陽: 干!(兩人在桌邊往盤子里夾菜, 然后走到場地邊的椅子上坐下來)時間過得真快呀, 一年一年像飛一樣。

(건배! 시간이 참 빨라. 일 년 일 년 날아가는 것 같으니.)

→羅伯特: 是呀, 回想几年前我剛認識你的時候, 你還是個沒畢業的大學生呢。現在呢, 堂堂業務部的大經理了!

(그러네. 몇 년 전 막 알기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자넨 아직 졸업도 안 한 학생이었지. 헌데 지금은, 당당히 업무부의 경리가 되었으니!)

→郝 陽: 你不是也一樣? 記得那時候你連“你好”還說走調了呢, 現在不但漢語講得呱呱叫, 而且整個一個“中國通”了。(相視而笑) 哎, 對了老羅, 你跟我們公司的合同快要到期了吧?你有什么打算?

(자네도 같지 않은가? 그 때 자넨 “안녕하세요”도 어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말은 물론이요 “중국어”이 되어있지 않은가. 아 맞다 노형, 우리 회사와의 계약이 곧 만료될 텐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

이러한 범주를 종합한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칭찬-반응”	주제		총계
	외모, 소유	능력, 성취	
분류	24	53	77
백분율	31.2	68.8	100

표.1

표.1을 보면 칭찬의 주제로는 외모나 소유의 “물질적인 면”보다는 능력이나 성취의 “정신적인 면”이 더 많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지은이가 학습자로 하여

금 칭찬 시 “능력”이나 “성취”를 더 많이 부각시키도록 교재구성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연담화를 대상으로 한 Wang & Tsai(2003)의 분석결과와 반대된다. Wang & Tsai(2003:136 table.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칭찬-반응”	주제					총계
	외모 appearance	능력, 성취 ability/ performance	소유 possessions	성격, 친분 personality/ friendship	기타 other	
출현횟수	205	128	79	36	6	454
백분율	45.2	28.2	17.4	7.9	1.3	100

표.2

위에 제시된 Wang & Tsai(2003)의 분석결과에서 “외모”와 “소유” 범주는 총 284회, 62.6%이다. 이는 “능력”과 “성취”의 총합이 68.8%를 보인 표.1의 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재의 “칭찬”행위가 중국어 모어화자의 행위 관습과 일치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 2. “반응”에 따른 “칭찬—반응”

“반응”은 첫 번째 화자의 칭찬을 듣고 두 번째 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칭찬”과 같이 “교재의 편찬자는 두 번째 화자의 반응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은 크게 “수용”, “거절”, “무응답”으로 나눌 수 있다. Wang & Tsai(2003)의 분류를 참고하면 “수용”과 “거절”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수용(Agreement)>	<거절(Nonagreement)>
1. 감사(appreciation token): 예: A: ..這袋子滿好看的。 B: ..謝謝。	7. 강등(scale down): 예: A: ..這是你家呀? ..好干淨哦。 B: ..還好吧。
2. 동의(comment acceptance): 예: A: ..好有趣啲。	8. 질문(question): 예: A: ..我很羨慕你這樣的個性。

- |  |   |
|--|---|
| <p>B: 對呀。</p> <p>3. 강화(raise upgrade):<br/>예: A: ..感覺上你變漂亮了。<br/>B: ..本來就很漂亮了。</p> <p>4. 내원설명(comment history):<br/>예: A: ..滿好看的。<br/>B: ..前几天去買的。</p> <p>5. 조정(reassignment):<br/>예: A: ..ye, 你穿新的毛衣啲, ..滿, ..還滿好看的。<br/>B: ..穿第二次了。</p> <p>6. 되돌려주기(return):<br/>예: A: ..你是滿有智慧的一个人啊。<br/>B: ..你腦筋也不差。</p> | <p>B: ..真的嗎?</p> <p>9. 반대(disagreement):<br/>예: A: ..你好象變瘦了。<br/>B: ..騙人。</p> <p>10. 제한(qualification):<br/>예: A: ..滿好看的耶, 滿適合你的哦。<br/>B: ..我也覺得不錯。</p> <p>11. 무응답(no acknowledgement):<br/>예: A: ..感覺滿斯文的啦。<br/>B: ..啊你不是有急事嗎? ..怎么不去配衣服呢?</p> |
|--|---|

표.3

Wang & Tsai(2003)의 분류에는 “수용”도 “거절”도 아닌 범주 “해석요구(request interpretation)”를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선은 본고의 분석에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강한표현—칭찬하는 사람의 체면을 위협하는—은 교재의 표현으로 설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논외로 하였다. 그리고 Wang & Tsai(2003)는 표.3의 11에 해당되는 “무응답”을 “거절”의 한 하위 형태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인접쌍의 구성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 척도로 “무응답”을 설정하고자 제 3의 범주로 따로 분류하였다. 표.3과 같은 “수용”과 “거절”의 하위범주를 바탕으로 분석한 본고의 통계결과를 다음과 같다.

수용(Agreement)	출현횟수	백분율
1.감사(appreciation token)	3	3.9
2.동의(comment acceptance)	2	2.6
3.강화(raise upgrade)	3	3.9
4.내원설명(comment history)	5	6.5
5.조정(reassignment)	0	0.0

6.되돌려주기(return)	4	5.2
소계	17	22.1
거절(Nonagreement)		
7.강등(scale down)	3	3.9
8.질문(question)	2	2.6
9.반대(disagreement)	19	24.7
10.제한(qualifacation)	4	5.2
소계	28	36.4
무응답(no acknowledgement)		
11.무응답(no acknowledgement)	32	41.6
소계	32	41.6
총계	77	100

표.4

수용(Agreement)	출현횟수	백분율
1.감사(appreciation token)	28	6.2
2.동의(comment acceptance)	89	19.6
3.강화(praise upgrade)	12	2.9
4.내원설명(comment history)	10	2.2
5.조정(reassignment)	24	5.3
6.되돌려주기(return)	3	0.6
소계	166	36.5
거절(Nonagreement)		
7.강등(scale down)	52	11.5
8.질문(question)	103	22.7
9.반대(disagreement)	20	4.4
10.제한(qualifacation)	98	21.6
소계	273	60.2
무응답(no acknowledgement)		
11.무응답(no acknowledgement)	10	2.2
소계	10	2.2
총계	449	98.9*

\*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석요구”를 제외한 값이다

표.5(Wang & Tsai 2003:142 table.4)

표.4 상의 결과를 보면, 칭찬에 따른 “반응”은 “무응답”이 32회,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반대”가 19회, 24.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10회 미만의 출현횟수로 최대 7%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과 “반응”, “무응답”의 비율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교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무응답”이라는 결과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언어공동체나 첫 번째 화자의 발화에 대한 두 번째 화자의 응대가 자연스럽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자연담화를 대상으로 분석한 표.5의 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위의 두 표를 비교하면 “거절”이 “수용”보다 많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무응답”이 41%나 차지하고 있는 교재대화와는 달리 중국원어민의 자연담화에는 2.2%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무응답의 출현이 미미하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지위”에 따른 “칭찬—반응”

“지위”는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를 말하는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즉 상하관계가 표면적으로 명시된 화자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간 대화나 이웃 간 대화, 친구 및 동료 간 대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선시하는 유교문화권의 관습과 대화상의 맥락을 바탕으로 각 역할들의 지위를 정하였다. 지위가 높으면 “H(igh)”, 낮으면 “L(ow)”, 대등하면 “E(qual)”로 표기하였는데, 그에 따른 본고의 자료 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칭찬-반응			소계	칭찬-반응			소계	총계
	H-1-1	H-1-2	H-1-3		H-2-1	H-2-2	H-2-3		
높은 지위									
출현횟수	1	2	0	3	7	2	7	16	19
백분율	1.3	2.6	0	3.9	9.1	2.6	9.1	20.8	24.7
낮은 지위	L-1-1	L-1-2	L-1-3		L-2-1	L-2-2	L-2-3		
출현횟수	3	1	4	8	1	3	2	6	14
백분율	3.9	1.3	5.2	10.4	1.3	3.9	2.6	7.8	18.2
대등한 지위	E-1-1	E-1-2	E-1-3		E-2-1	E-2-2	E-2-3		

출현횟수	0	6	7	13	6	11	14	31	44
백분율	0	7.8	9.1	16.9	7.8	14.3	18.2	40.3	57.1
총계				24				53	77
백분율				31.2				68.8	100

표.6

위의 표.6에서 보이는 “H/L/E-x-x”형식에서 “H/L/E”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각각의 지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첫 번째 숫자는 “칭찬”을 의미하는데, “외모, 소유”에 대한 칭찬은 1번으로, “능력, 성취”에 대한 칭찬은 2번으로 표시되었다. 마지막에 놓이는 숫자는 “반응”을 의미하는데, “수용”은 1번으로, “거절”은 2번, “무응답”은 3번으로 표기되었다. 예를 들면 “H-1-1”은 “높은 지위”의 화자가 상대방의 “외모, 소유”에 대한 칭찬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그것을 “수용”하였음을 뜻한다. 또 “L-2-2”는 상대방의 “능력, 성취”에 대해 “낮은 지위” 화자가 칭찬을 하고 이를 상대방이 “거절”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표.6을 보면, 칭찬하는 화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 “능력, 성취” 칭찬에 대해 낮은 지위 화자의 “수용”(9.1%)과 “무응답”(9.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칭찬하는 화자의 지위가 낮은 경우, “외모, 소유” 칭찬에 대해 높은 지위 화자의 “무응답”(5.2%)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화자간 대등한 지위의 경우에는 “외모, 소유”에 대한 칭찬을 하든(9.1%) “능력, 성취”에 대한 칭찬을 하든(18.2%) 상대방이 모두 “무응답”으로 응대하고 있는데, 기타 지위관계보다 “무응답”이 특히 더 두드러진다.

#### 4. “인접쌍의 구성유무”에 따른 “칭찬—반응”

마지막으로 “인접쌍의 구성유무”는 선행화자의 칭찬에 대해 후행화자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지은이가 “칭찬—반응” 쌍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인접쌍”은 상호 작용으로서의 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선행 화자의 발화에 후행화자가 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화”라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여 대응하는 화자의 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이라고 할 경우, 인접쌍에 대한 고찰은 교재가 얼마나 상호작용능력을 배양하게끔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일 수 있다. 선행화자의 “칭찬” 행위에 후행화자의 “반응”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본교의 집계결과는 아래와 같다.

“칭찬-반응”	인접쌍 구성유 : 무	총계
분류	43 : 34	77
백분율	55.8 : 44.2	100

표.7

표.7을 보면, 교재 내 제시된 전체 77개의 “칭찬-반응”구조 중에서 “칭찬”하는 발화와 그에 “반응”하는 발화로 하나의 인접쌍을 구성한 경우가 43건, 55.8%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34건, 44.2%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3.2절, 3.3절에서 보이는 “무응답” 반응의 빈도가 높다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인접쌍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선행화자가 칭찬발화를 했음에도 후행화자가 그에 상응하는 반응발화를 하지 않았음을 뜻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교재의 저자가 “칭찬”에 대한 후행화자의 반응발화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IV. 분석

대화는 최소 두 사람의 참여자를 전제한다. 그리고 그 두 참여자는 선행화자의 발화행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간다. 예를 들면 선행화자의 “밥 먹었어?”라는 “질문”에는 그 의도에 따른 후행화자의 “응”, “아니”, “지금 먹으러 가려구” 등의 “대답”이 요구되며 “너는?”이라는 되묻기로 다시 대화는 이어진다. 이와 같은 틀로 제 3절의 현상을 살펴보면, “칭찬”에 대한 “무응답”반응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세하다는 점은 본질적으로는 교재의 저자들이 대화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위와 같은 “무응답” 반응의 우세현상이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 “행위”위주의 대화구성이 아닌 “표현”위주의 대화구성이다. “말만 잘하면”, “원어민이면” 누구나 말하기교재를 편찬할 수 있다는 일종의 “표현” 위주의 교재편찬 풍토가 그것인데, 대화를 원어민 화자의 상호작용“행위”로서 보기 보다는 “언어”표현들의 연속체라고 보았던 탓에 “반응”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래의 예를 같이 보도록 하자.

(7) [路(下) 22:51]

英 愛: 老師, 您教了多長時間漢語了?

(선생님은 몇 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치셨어요?)

老 師: 十多年了。 (십여 년 됐다.)

英 愛: 您今年多大年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老 師: 三十七歲。 (서른 일곱이란다.)

→ 英 愛: 真的嗎? 您顯得真年輕, 我以為您才三十一二呢。

(정말요? 정말 동안이시네요. 전 서른 한 둘인 줄 알았어요.)

→ (老 師: ? )

(?)

예(7)을 보면, 英愛가 선생님에게 예닐곱 살이나 낮추어 보며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지만 칭찬“표현”을 하는데 머물렀을 뿐 그에 대한 선생님의 적절한 “반응”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예의 대화가 “행위—반응”의 시각에서 불충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동안이시네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명의 발화자에 배당된 발화내용이 너무 길다. 중국어 원어민들의 대화를 논할 것이 없이 우리의 일상대화를 보면 화자들이 짧은 편쪽의 발화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대화를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은 매우 역동적인 데 반해 교재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매우 느슨하며 정적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8) [高 1:2]



.....

林 父: 動物通人性嘛, 特別是狗。志強小時候養過狗, 送出去好幾次又都跑回來了, 真招人疼。哎, 聽說你們快期末考試了, 學習緊張嗎?

(동물은 사람과 통하잖아. 특히 개를 봐.志强이 어렸을 때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 몇 번이고 누굴 쥐도 돌아와서 정말 가슴 아팠다고 그래. 너희들 곧 기말고사라고 들었는데 공부하기 힘들지?)

鈴 木: 還可以。

(그럭저럭요.)

林志強: (坐在沙發上削水果)她呀, 學習起來是拼命地學, 玩儿起來又是拼命地玩儿。

(저 친구야, 공부하면 공부 놀이하면 놀이, 모두 열심히 해요.)

→ 林 雪: (給林木續茶)你的漢語挺地道, 沒有洋腔洋調, 來這儿几年, 習慣這儿的生活了吧?

(중국어에 외국인 억양이 없는 것이 마치 본토 사람 같은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지, 이 곳 생활에 습관은 들었지?)

→ 鈴 木: (?) 剛開始可真不適應。早上實在爬不起來, 這儿上課的時間太早, 可留學生們又都是夜貓子。現在我也和中國人一樣, 中午總要睡會兒覺, 要不然下午就昏昏沉沉的, 干什麼都沒有精神。

(?)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정말 일어나지도 못했고. 이곳의 수업시간은 매우 이르잖아요. 하지만 유학생들은 또 모두 올빼미 생활을 하고 지금은 저도 중국인들처럼 12시 즈음해서 는 잠도 좀 자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 내내 비몽사몽해서 뭘 해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

예(8)에서 林雪은 鈴木의 남자친구인 林志強的 누나이다. 교재에서의 상황은 鈴木가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놀러가서 林志強的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때 연장자인 林雪가 “你的漢語挺地道, 沒有洋腔洋調(중국어에 외국인 억양이 없는 것이 마치 본토 사람 같은데)”라고 했을 때, 일상의 관습으로 유추한다면, 鈴木는 자연스럽게 머뭇거림 없이

그에 대한 반응(주로, “거절”)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교재대화에서는 鈴木의 반응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林雪의 발화를 계속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의 구성은 결국 첫 번째 화자인 林雪 발화의 마지막 행위—질문—를 겨냥해 두 번째 화자인 鈴木가 대답하도록 만하는 결과를 낳도록 하였다. 이러한 “질문—대답”의 구조에서 “칭찬”에 대한 “반응”이 개입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대화의 속성과 그 구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경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3.3절의 “H-2-3” 항목을 보면 높은 지위의 화자를 낮은 지위의 화자가 “수용”과 같은 수준으로 “무응답”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응답”반응은 대화에 내재된 기본적 관습은 물론, 연장자를 우대하는 유교문화권 내의 예의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대화의 속성과 그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양한 표현의 나열만을 교재내 대화구성의 제 1항목으로 놓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일상”의 소통능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고는 대화분석 방법론의 연속체 구조인 “인접쌍” 개념을 바탕으로 중국어 말하기교재 내의 “칭찬—반응”구조 총 77건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재 내 대화구조가 보이는 현상이 자연담화에서 보이는 현상과 괴리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연구(Wang & Tsai 2003)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결론적으로, 교재 내 대화에 출현하는 “칭찬—반응”구조가 중국어 화자의 행위 관습과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칭찬”발화에 대응하는 “반응”발화의 부재가 그것으로서 그에 대한 원인으로 대화속성에 대한 교재 저자의 이해부족을 꼽았다. 그리고 그러한 불충분한 고려가 1)표현위주의 대화구성과 2)과다한 발화내용의 제시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현상들과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교재 편찬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 1) 자연담화 대상의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담화 연구와 교재 분석 및 구성을 병행하는 것이다. 자연담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교재의 미진한 점들을 확인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교재 구성에 쏟아 붓는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좀 더 높은 현실적 감각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자연담화에서는 중국어 모어화자든 영어 모어화자든 모두 “외모”에 대한 칭찬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지만(Holmes 1988:458 참고[Wang & Tsai 2003:136 재인용]), 본고의 교재분석 결과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자연담화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칭찬”행위로서 “능력, 성취” 방면의 표현보다는 “외모, 소유” 관련 표현을 좀 더 다양화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자연담화 자체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자연담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교재에서 제시한 것처럼(예문8) 과도한 양의 발화가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일상의 대화는, 교재와 다르게, 오히려 화자 간의 역동적인 말하기 순서(turn-taking)에 따라 짧고 간결한 발화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일상의 발화 구성을 참고하여 예문(8)을 재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8) [高 1:2]

.....

→ 林 雪: (給林木續茶)你的漢語挺地道, 沒有洋腔洋調, 來這兒  
幾年, 習慣這兒的生活了吧?

(중국어에 외국인 억양이 없는 것이 마치 본토 사람 같은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지, 이 곳 생활에 습관은 들었지?)

→ 鈴 木: (2) 剛開始可真不適應。

((?)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지 못했어요.)

.....

(8') [高 1:2]

.....

→ 林 雪: (給林木續茶)你的漢語挺地道, 沒有洋腔洋調,  
(중국어에 외국인 억양이 없는 것이 마치 본토 사람 같은데, )

→ 鈴 木: 哪儿啊, 還差得遠呢(或“謝謝您過獎”或“我媽媽是中國人”).

(필요, 아직 멀었죠. (또는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나 “저희 어머니가 중국분이시거든요”))

林 雪: 來這儿几年, 習慣這儿的生活了吧?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지, 이 곳 생활에 습관은 들었지?)

鈴 木: 剛開始可真不適應.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지 못했어요.)

.....

나아가 이러한 점에서 “유창함”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외국어능력을 “얼마나 많은 양의 발언을 씬 없이 하느냐”로 가늠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느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 3) 대화분석 방법론을 분석틀을 교재 분석과 구성에 참고, 적용시켜야 한다. 본고의 집필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예컨대, “인접쌍”, “선호조직” 등의 개념은 상호작용적 시각에 비추어 봤을 때 교재 내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더 부가되어야 하는지, 원어민의 대화관습에 어긋나는 발화표현은 없는지 등을 분석,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반대로, 교재 편찬자가 그러한 개념을 교재 구성 시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현실적 행위구조에 바탕을 둔 대화구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구현정, 진정미, 『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2007.
- 김용용, 『중1 영어교과서 대화문 분석 - 사회언어학적 변인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용예,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영어학의 최근 논점(양혜순, 이성범, 이창봉 엮음)』, 한국문화사, pp.321-364, 2005.
- 백경숙,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칭찬에 대한 응답전략 고찰, 『사회언어학 6권 2호』, pp.229-264, 1998.
- 이원표,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사용된 공손법 분석”,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pp.323-364, 2001.
- 이익환, 권경원 공역, 『화용론[Pragmatics, Stephen C. Levinson]』, 한신문화사, 1992.
- Chen, rong, “Responding to compliments: A contrastive study of politeness strategies between American English and Chinese speakers”, 『Journal of Pragmatics 20.11』, pp.49-75, 1993.
- Chen, Shu-hui Eileen, “Compliment Response Strategies in Mandarin Chinese: Politeness Phenomenon Revisited”, 『Concentric: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29.2』, pp.157-184, 2003.
- Sacks, Harvey & Schegloff, Emanuel A.,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VIII.4』, pp.289-327, 1973.
- Wang, Yu-Fang & Tsai, Pi-Hua, “An Empirical Study on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Taiwan Mandarin Conversation”, 『Concentric: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29.2』, pp.118-156, 2003.
- Ye, L., “Complimenting in Mandarin Chinese”, 『Pragmatics of Chinese as native and target language』,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pp.209-301, 1995.
- 叢琳, 盧嵐嵐 편저, 『新步步高 중국어(중급)』, 시사중국어사, 2007.
- 劉彤, 邵力敏 편저, 『Easy 中國語』1, China Press, 2004.
- 劉彤, 邵力敏 편저, 『Easy 中國語』2, China Press, 2004.
- 劉彤, 邵力敏 편저, 『Easy 中國語』3, China Press, 2004.
- 劉德聯, 劉曉雨 編著, 『中級漢語口語(下冊)』,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劉元滿, 任雪梅, 金舒年 編著, 『高級漢語口語(上冊)』, 北京大學出版社, 2004.
- 馬箭飛, 李小榮, 『신공략 중국어 프리토킹편(제2판)』, 다락원, 2007.
- 沈建華, 『알짜배기 중국어 구어표현 500』, 시사중국어사, 2006.
- 趙金銘, 蘇英霞, 胡孝斌, 『중국어어路(上)』, 다락원, 2007.
- 趙金銘, 蘇英霞, 胡孝斌, 『중국어어路(下)』, 다락원, 2007.

❖ ABSTRACT

## Analysis on Chinese conversation textbooks by “adjacency pairs”: Focused on “Compliment—Response”

Park, Chan-wook

This study aims to analysis “compliment—response” construction on Chinese conversation textbooks(edited by the native Chinese) in terms of “adjacency pairs” and also to investigate how far the editing is from convention of Chinese conversation.

While a response for compliment is needed in Chinese routinely, the compliment adjacency pairs on textbooks do not correspond with convention of the native Chinese, especially on compliment responses—44.2% in the data of this study do not have response. This means that the textbooks don’t reflect the real life of the Chinese and also may have the learner be on a wrong way to acquire Chinese. This may be attributed to lack of editor’s understanding the features on conversation, that is to say, 1)a lot of editors think that the constructing conversation in terms of “expression” is important, but not “(social)act”; 2)they also arrange a long turn(or many contents) for one speaker, such as the long a length of text is, the high a level of learner is, while the real conversation among the Chinese actually is organized by some acts made of short expressions.

To overcome these shortages, it is suggested that we have to 1)keep studying the outcomes of researches; 2)keep conducting a survey about the natural(real) conversation itself; 3)apply the research method of the Conversation Analysis to the analysis and the arrangement of textbook.

---

### Key Words

연속체, 인접쌍, 칭찬, 반응, 중국어 말하기교재  
sequence, adjacency pairs, compliment, response, Chinese conversation textbook

논문접수일: 2009. 11. 15.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